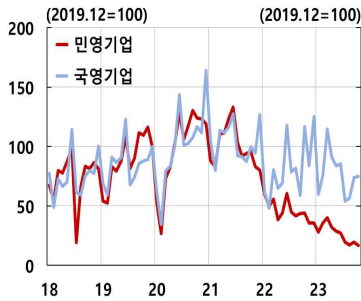


민영 부동산개발기업을 중심으로
매출 부진 심화

신규주택 판매 부진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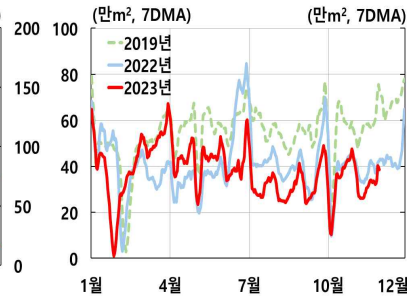
미분양면적 증가세 지속

[그림 6] 부동산개발기업¹⁾ 매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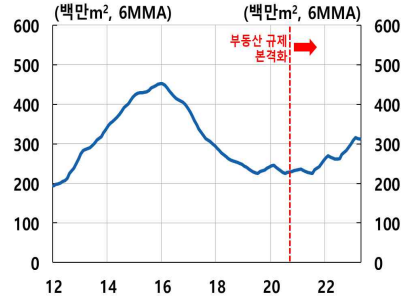
주: 1) 주요 7개 국영기업, 11개 민영기업 기준
자료: WIND

[그림 7] 신규주택 판매면적



자료: WIND

[그림 8] 미분양면적



자료: 중국 국가통계국, CEIC

7.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최근 중국정부가 부양조치를 시행⁵⁾하였는데, 동 조치로 인해 부동산 부문의 디레버리징이 다소 지연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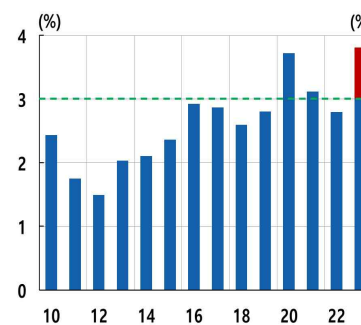
시장에서는 동 조치를 그간의 수요진작책에도 부동산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와 부동산개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부동산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. 한편 중국정부는 2020년 ‘쌍순환 전략⁶⁾’을 통해 소비중심의 성장구조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데, 최근 부동산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문화·여행 소비쿠폰 지급, 가전·가구 구매 지원, 전기차 취득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 민간소비 촉진책을 시행하였다.

재정적자율 상향 조정

특별국채 1조위안 추가 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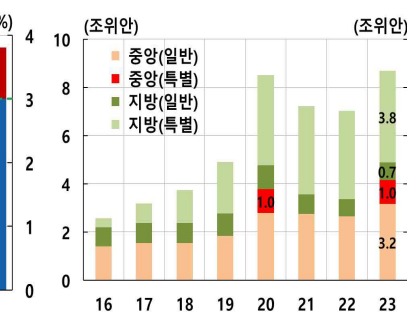
소비의 낮은 성장기여율

[그림 9] 재정적자율¹⁾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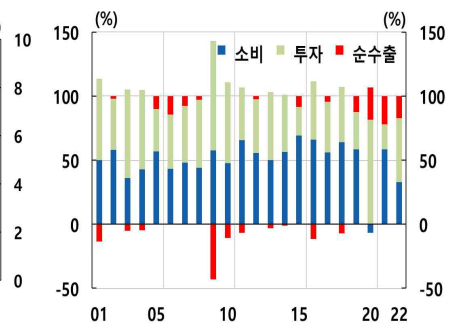
주: 1) 명목 GDP 대비
자료: CEIC

[그림 10] 중국정부의 국채발행 한도



자료: 중국 재정부, CEIC

[그림 11] 중국 성장률 부문별 기여율



자료: 중국 국가통계국

- 중국정부의 모기지금리 인하, 주택구매제한 완화 등 주택수요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민영 부동산개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정책대응을 강화하였다. 중앙정부는 LGFV 부채문제 등으로 재정여력이 제한적인 지방정부의 인프라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례적으로 재정적자율을 상향 조정(3.0% → 3.8%)하고 특별국채(1조위안)를 발행하기로 결정(10.24일)하였다. 아울러 중앙금융공작회의(10.30~31일)에서는 국영 및 민영 부동산개발기업의 자금수요를 차별하지 않고 도시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부동산의 실수요와 개선형 수요를 지원할 방침을 발표하였다.
- 쌍순환은 중국경제를 국내순환과 국제순환으로 구분하여, 국내순환을 경제 성장 및 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경제 전략이다.